



고려해운

3년 연속 무사고 무재해 달성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10월14일 부산지점에서 박정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3년 연속 무사고, 무재해' 달성 축하행사를 갖고 해상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정석 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한 것은 육해상 임직원 모두의 강한 애사심과 숨은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무사고, 무재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비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고려해운의 무사고, 무재해 운항은 업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고객들에게 서비스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려해운 소속의 KMTC PORTKELANG호(선장 김신호)가 9월29일 홍콩을 출항하여 싱가포르로 항해 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11시52분경 홍콩 MRCC(Marine Rescue Coordination Center)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하여, 베트남 하노이 남동쪽 약 800km부근 해상에서 제16호 태풍 '메갈라'에 의해 조난된 선박(M/V YINSON POWER 1호, 2호 이상 두척)의 선원 중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을 구조했다.

조난된 선박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예인선으로, 작업을 위해 항해하던 중 태풍을 만나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이었다.

고려해운의 KMTC PORTKELANG호는 풍속 60노트, 파고가 6미터나 되는 악조건 하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쳐 조난자 중 4명을 우선 구조하였으며, 이후 조난 지역에 도착한 베트남 해군 함정에게 구조 업무를 인계하고 구조자 4명에 대한

이송을 위해 곧바로 싱가포르로 항해를 재개하였다.

고려해운은 지난 2007년 11월에도 전복된 어선에서 조난된 중국 선원을 구조한 바 있다.

또한, 고려해운은 선박의 안전 운항으로 최근 3년 연속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했다.

글로벌스

대규모 원료탄 운송계약 체결

글로벌스(사장 양승석)가 국적선사들과 대규모 장기운송계약(COA)을 체결했다.

글로벌스는 한진해운과 대한해운, STX팬오션,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 4곳과 총 1조2,970억원 규모의 제철원료탄 장기운송계약(COA)을 체결했다고 11월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현대, 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안정적인 제철원료 수송을 위한 것으로 2010년 가동을 목표로 충남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포워딩(북합운송) 계약을 맺고, 브라질과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광석과 유연탄 등 제철원료 운송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에 글로벌스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국내 해운업체 4개사는 전용선 1척씩을 투입, 앞으로 연간 총 400만T 규모의 원료탄을 운송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한진해운의 경우 오는 2011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20년간이며, 나머지 3개 선사들은 오는 201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5년간이다.

특히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선사4곳은 모두 국적선사로 향후 국내 해운산업 발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연료탄 장기운송계약시 국적선사들을 보호하



는 노력을 전혀 해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장기운송계약과 관련해 국적 선사 선정을 최우선시 했다”며 “현대제철 또는 이번 포워딩 계약으로 안정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고로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비스는 지난 1월에도 현대제철과 1조3천300억원 규모의 제선원료 운송을 위한 포워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글로벌비스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과 장기운송을 체결하고, 선사 1곳을 추가했다.

대한해운

한국 재무경영대상 수상



대한해운(회장 이진방)은 최근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한국재무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들 중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기(종합대상)를 수여받았다고 10월1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해운은 종합평점 100점 만점 중 89.11점을 받아, KT&G(89.00), STX(83.58) 등 국내 우수 대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부문별 대상은 삼성광주전자, 한국인삼공사 등이

수상했으며, 혁신대상에는 현대삼호중공업, 금호피앤비화학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해운은 원자재 수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국내 최대 전용선사로 자리잡았다.”며 “40년 동안 해운업에만 전력을 쏟는 등 활동성, 수익성 부문에서 타 기업보다 뚜렷하게 우수했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재무경영대상 시상위원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공인회계사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국내 68개 그룹의 1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팬스타라인닷컴

팬스타 드림호 천번째 꿈의 항해

대한민국 크루즈 페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팬스타의 대표 페리선인 팬스타 드림호가 2002년 4월 23일 부산에서 오사카를 향하는 첫 출항을 시작으로 6년 6개월여만인 2008년 10월 10일 역사적인 1000항차를 맞았다.

(주)팬스타(대표 김현겸 회장)는 팬스타 드림호의 1000항차 달성은 국내 최초로 부산-오사카 정기항로를 구축한 이래 단 한차례의 결항도 없이 안정적인 운항을 실현시키며 부산-오사카를 왕복한 결과로 취항초기의 어려움과 악천후, 최근의 유가폭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뚫고 성취해낸 점에서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팬스타는 부산-오사카 항로의 안정화를 시킨 이후 주말 크루즈를 시작해 크루즈 대중화에 앞장서 왔으며 팬스타 씨니호의 투입으로 daily service를 실현, 화물특급운송서비스인 PUE(PANSTAR ULTRA EXPRESS)의 디딤돌을 쌓았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크루즈 선인 팬스타 허니호를 도입하는 기쁨을 토했다.



팬스타 관계자는 "팬스타 드림호의 1000항차의 역사 속에는 선상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감동, 108세 고령의 할머니를 모신 기쁨, 응급환자 발생으로 1시간여 배를 돌려 헬기로 긴급수송을 보낸 안타까움 등 만감이 교차한다. 그간의 운항이 간단치 않았으나 보람도 그만큼 많았다"고 슬회했다.

또한 그는 "1000항차 동안 약 79만 5000명이라는 많은 탑승객이 팬스타 크루즈 페리를 이용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기업, 팬스타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카페리 및 크루즈 선사에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뜻을 펼쳐나가도록 임직원 및 전 직원이 한 힘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팬스타는 팬스타 드림호의 1000항차를 축하하기 위해 10월 10일 팬스타 드림호 선상에서 1000항차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진해운

유럽 신규서비스 개시

한진해운(대표이사 박정원)이 10월말부터 새로운 유럽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유나이티드아랍쉬핑(UASC)과 선박을 임차하는 형태로 10월29일과 30일 AEC (Asia Europe Container Service)와 CME(China Middle East Service)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AEC는 38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을 투입해 부산-치환-홍콩-싱가포르-코파칸-제다-피파바브-나바샤바-로테르담-테임즈포트- 함부르크-앤티워프-몰타-제다-포트켈랑-하카다-부산을 차례로 기항하는 서비스다.

CME는 6600teu급 컨테이너선 총 9척을 투입해

상해-사면-안티안-싱가포르-제다-로테르담-테임즈포트-브레머하벤-앤티워프- 코파칸-싱가포르-상해를 차례로 기항하는 서비스다.

한진해운은 구주 서비스 노선의 다양화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된 신규 노선은 중동과 인도 등의 신흥시장과 브레머하벤 등의 유럽 항구 추가 기항을 통해 하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신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인도발 미주 서비스에 더해 구주항 직기항함으로써 한차원 더 높은 수준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항로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상선

신조직문화 '4T' 선포

현대상선이 21세기 최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新조직문화 '4T'를 선포했다.

현대상선은 10월1일 김성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선동 사옥에서 新조직문화 '4T'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현대상선은 그룹의 新 조직문화 4T(Trust : 신뢰, Talent : 인재, Togetherness : 혼연일체, Tenacity : 불굴의 의지)를 회사의 핵심가치로 삼아 '조직을 변화Reshaping'시켜 '새로운 현대상선'을 창조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성만 사장은 "4T와 같은 변화(Reshaping)는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번 新 조직문화선포식을 통해 우리 현

대상선 임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마인드와 조직 내에서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맡은 바 일에 대해 주도적인 자세로 임해 조직의 변화(Reshaping)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新 조직문화 4T는 현정은 회장 취임 후 제2기를 맞는 현대그룹의 새로운 경영 방침으로 현대상선은 이날 선포식에서 이를 회사의 조직문화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이후 '현대상선 비전 2012'로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은 그룹의 新 조직문화 핵심가치인 4T를 현대상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나침반으로 삼고 이에 맞춰 현대상선을 21세기 최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표명이라는 것이 현대상선 측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이미 지난 1월 김성만 사장 취임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사적인 전략 수립 및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직속의 CSO(Chief Strategy Officer), CPO(Chief Procurement Officer)를 임명했다.

또한 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윤리경영팀'과 'PI(Process Innovation)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조직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허구연 MBC 야구 해설위원'이 초빙되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야구뿐만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특유의 구수한 입담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현대그룹은 그룹의 재도약을 위해 9월25일 新 조직문화 4T를 선포하고 현대택배를 시작으로 선포식을 가지고 있는데 10월1일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어 나머지 계열사도 이달 안에 선포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해양대학교

2008년 국제항해출항식 거행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2008년 10월14일(화) 오전 10시 목포시장을 비롯하여 주영순 기성회장, 목포지역총동창회장 등 주요 외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의 국제항해 승선실습(승선 실습 학생 231명) 출항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국제항해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국제항해 승선실습에서 직접 적용하며 실무경험을 쌓고 국제화 시대에 외국 문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마다 두차례 실시하고 있다.

실습선 새유달호는 학생 139명이 승선하여 일본 사세보에 기항하게 되며, 새누리호는 학생 92명이 승선하여 중국 상해에 기항하게 된다. 양 실습선은 일주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0월 21일(화) 목포해양대학교로 귀항할 계획이다.

목포해양대학교 2척의 실습선(새유달호, 새누리호)은 이번 국제항해 실습기간 중 현지 교민과의 교류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익 제고를 위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다.

선박안전관리공단

'비전 재정립 워크샵'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10월15일 민경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시 소재 가천인력개발원에서 '비전 및 전략체계 재정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단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험이 많은 팀지부장들이 차석해 비전 및 전략체계 등에 대해 분임토의를 했다. 향후 공단은 이번 토의 결과를 비전 및 전략체계 재정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경태 이사장은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전 및 전략체계 재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민자시설 투자설명회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장승우)가 박람회장 민자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조직위는 10월24일 중구 왕십리 소재 도로교통공단에서 민자시설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여수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시안)마련으로 박람회 관련시설의 규모·위치 및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등이 확정단계에 이르러 민자시설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시시설 중 일부 조직위 직접사업도 가능하다면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건설기업, 금융기관, 부동산개발기업, 로펌, 투자기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해안 선벨트(Sun-belt) 사업에 대한 소개도 병행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동안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주요시설은 전시시설(한국관·지자체관, 주제관, 부제관, 국가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아쿠아리움)지원·운영시설, 상업 및 편의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민자유치 대상은 아쿠아리움, 해상공연장, 콘도 및 유원시설 등 약 2,000억원 규모

이며, 국제관 등 조직위사업도 사후 활용성 등을 감안한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위 송명달 민자사업팀장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철도, 도로, 항만 등 SOC확충으로 여수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이번 민간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그동안 박람회 민자사업에 관심은 있었으나 투자를 주저해왔던 많은 잠재적 투자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했다.

한국선급 유럽본부 출범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은 지난 10월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럽 지역의 사업을 총괄하는 유럽본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설된 유럽본부의 본부장에는 지난 8년동안 한국선급의 그리그 및 유럽시장 개척에 핵심적 공헌을 해온 권재근 파이레우스 지부장이 임명됐다.

오 회장은 약 3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국선급의 유럽본부 설립을 통해 유럽 해운업계에 더욱 특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유럽선주들이 경험하지 못한 실질적인 24시간 대고객 밀착서비스를 통해 타선급보다 더욱 뛰어난 기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그리스 아테네는 세계 유수의 해운업체들이 밀집해있는 곳으로, 한국선급은 막판까지 아테네와 런던을 사이에 놓고 유럽본부 위치를 고심해왔다.

그러나 그리스가 국내 해운 및 조선업계와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세계 해운계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 및 한국선급의 해외고객의 25%에 달하는 그리스 선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우너에서 아테네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의 유럽본부는 앞으로 △유럽 각국에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서비스망 총괄(2009년 이탈리아 제노아, 터키 이스탄불 개소 예정) △유럽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유럽에서의 독자적인 마케팅 및 영업 활동 △유럽 기자재 승인 관련 업무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선급은 현재 유럽에 6개의 지부(함부르크, 로테르담, 코펜하겐, 아테네, 라스팔마스, 런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세계에 5개의 해외지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선급 주관으로 제1회 서울 국제해사조선 컨퍼런스가 11월4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급, 조선업계, 해운업계, 국제해사업계의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해양 사고 및 오염을 방지하고 국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급 관계자는 밝혔다.

참가대상은 국내 조선소, 해운업계, 국제해사업계, 해사언론, 보험, 국제선급협회 등이다.

발표주제는 혁신과 해사업계, '품질 및 현재 해운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 이슈에 있어서 해양보험업계의 역할', '선급 관점에서 본 조선의 품질: 새로운 도전은 있는가?', '탱커에 대한 기준 개발', '한국조선업의 기술발전과 혁신', '한국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관계', '탱커해운에 대한 문제와 도전 과제들', '벌크선 적재속도', 'ICS, IMO 및 규정들(ICS, IMO & Regulation)' 등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수도권 화물 유지에 올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최장현)이 서울·경기지역 하주 초청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수도권 지역 화물 공략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컨공단은 9월26일 국제물류학회 소속 하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한국타이어, 삼성전자로지텍 등 수도권지역 하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물량 유치를 위한 하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컨공단은 광양항 현황과 개발사업, 배후물류단지 개발·유지 현황, 배후인프라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컨공단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광양간 육상 운송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지역 하주의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광양항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한 하주들은 인센티브제도, 지원시설 등 광양항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고객 편의를 위한 군산-광양간 연안운송 개시를 위해 컨공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컨공단 최장현 이사장은 “고객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하주들의 광양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컨공단은 앞으로도 광양항 시설 현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초청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직접 주요 선하주를 방문해 고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양항 이용을 독려하는 ‘CEO 방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임직원 연찬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국동)는 지난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천안시 병천면에 소재한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임직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협회 설립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서울의 중앙협회 임직원을 비롯하여 전국 항만에 소재한 11개 각 지방협회의 임직원까지 63명 모두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협회 이광로 상근부회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직원간·협회간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회원사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일류협회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연찬회를 통하여 임직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통한 사기양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각 협회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조

체제 강화 및 팀워크활동 강화를 통해 조직단합과 상호 이해를 이룰 수 있도록 매년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원로해기사 초청간담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는 10월16일 '2008년도 서울·경기지역 원로해기사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 민흥기 회장, 전임 김흥두, 이진풍 회장을 비롯하여, 한



국해양대학교총동창회 마상곤 회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박재평, 조병용 심판관 등 100여명의 원로해기사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흥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로해기사 선배님들의 개척정신과 부단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해운산업은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며 “현재, 총 1,063척에 3,676만톤의 선복량을 확보함으로써 드디어 그리스, 일본, 독일, 중국, 노르웨이 에 이어 세계 6위의 해운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운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해기사 수급문제도 해운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육상의 관련 해기직 역시 그만큼 확대되고 다양화된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전하며, 특히 민 회장은 “해기사는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의 관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원이며 인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7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해양계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해기사협회는 미래의 해운주역이 될 예비해기사를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계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시스템공학부 오영진 학생을 비롯한 총 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8명은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등에서 각각 2명씩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심사해 선정했다.

한편 해기사협회는 앞으로 별도의 장학기금 재원을 마련, 장학금액과 인원을 확대해 미래의 해운주역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외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대학교(총장 오거돈)의 캄보디아 현지 해외 캠퍼스 설립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캄보디아 푸티사스트라 대학(University of Puthisastra)과 석안(Sok An) 캄보디아 부수상을 방문한 오 총장 일행은 한국해양대 분교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 대학 및 캄보디아 정부

와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함께 현지를 방문한 박진수 해사대학장은 세계적인 선원 부족현상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2009년부터 푸티사스트라 대학에서는 4명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우리 대학에서는 우수 교수진을 현지에 보내기로 하였다”며 빠른 시일 내 양 대학 간의 MOU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는 개교 63주년을 맞아 오 총장을 비롯하여 학내 구성원과 동문, 영도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4일 기념식 및 기념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시청각동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 총장은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근 우리 대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해양대가 있을 수 있다.”라며, “대학 구성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향해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오후 4시 대강당에서 학내 구성원, 동문, 영도구민 등 천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교향악단 초청 기념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출연한 오거돈 총장은 개교 63주년을 맞이하여 대학발전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러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 총장의 성악실력은 수준급으로 어린시절 말더듬을 극복하려고 배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개교 63년 기념사업으로 문화축제, 영화시사회,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 달간 펼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는 1919년 진해고등해원양성소를 모태로 하여 1945년 해양입국을 기치로 이시형 박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범 해양·해운 및 해양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종합대학이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독도지킴이 요트항해 실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 SK해운 대표이사)과 해마루요트클럽은 지난 10월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연맹지도자 및 클럽회원 등 18명으로 팀을 구성해 2008년도 독도지킴이 요트항해를 실시했다.

이번 항해는 바다로 뺏어나가는 해양소년단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대양에서 직접 요트를 조종하며 팀워크 발휘하고 항해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선진화 시대의 여가문화로 자리잡게 될 요트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소년단연맹은 이번 항해와 관련해 "끊이지 않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도가 자국의 아름다운 영토임을 만방에 알림과 동시에 자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국의 영토임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우리땅 독도를 밟고 교육현장에 돌아온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요트경기장을 출항해 울릉도를 거쳐 목적지인 독도까지 항해한 후 다시 부산요트경기장으로 돌아오는 3박 4일간의 항해코스는 요트크루징 교육과 더불어 해양과 역사라는 모토설정으로 우리 선조들의 해양에 대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통해 미래 해양강국의 이미지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한국해운조합

고객중심 터미널 워크숍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지난 10월9일부터 10일 양일간 인천여객터미널에서 '고객편의중심의 터미널 환경조성 Workshop'을 개최했다.

본·지수 터미널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Workshop은 터미널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관리 및 운영방안 설명, 지부별 서비스 개선대책에 관한 주제발표, 고객중심의 터미널 관리운영에 필요한 개선 및 건의사항 토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Workshop은 기존 강사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근무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의 시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쌍방향 교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조합은 전했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터미널 현장근무자들의 개인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터미널별 특성에 맞는 고객 최접점 서비스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Workshop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객 중심의 터미널 운영체계 구축에 반영하고, 이용객 편의 중심의 터미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

800여척 중 210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선박의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조합이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또한 안전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아이엔에이코리아, (주)한국해사감정, (주)극동검정 등 전문업체 4곳을 선정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 선박은 총 212척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의 진수일자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1회 점검하는 관리체계에 의거 선정되었으며, 이중 운항일정 등으로 인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2척을 제외하고 210척의 선박이 안전점검을 받았다.

점검결과 권고사항이 있는 선박은 권고사항 시정을 2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은 운항일정 등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2척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IMO기술위원회 부의장 선출

한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이 국내 최초로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소속된 OPRC-HNS Technical Group(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해상 유출 대비 대응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 : 이하 기술그룹)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제 8차 기술그룹 회의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서우락 과장이 부의장(Vice-Chairman)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향후 1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우락 과장이 기술그룹 부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향후 유류 및 HNS 오염과 관련되는 각종 지침과 매뉴얼 등의 제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발언권이 강화되고, 의제나 관련내용을 국내실정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내에서 부의장이 선출된 것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 중심의 본 회의에 아시아국가에서 부의장직에 선출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술그룹회의는 OPRC협약과 OPRC-HNS의정서에 따른 국가 간 기름과 화학물의 해양오염사고 시 방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2002년 국제해사기구 4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산하 상설 전문가 회의로 승인되어 2003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 해양유출사고와 관련된 협약의 개정사항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지침 및 매뉴얼, 훈련과정 등을 개발 또는 수정하고 각종 관련행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그룹회의는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연 1~2회(홀수년 1, 짝수년 2) 개최되며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일본, 러시아, 스페인 등 세계 주요 해운 25개국,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을 비롯한 ITOPF, OCIMF, IPIECA, ICS 등 지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우리나라에 보상과 피해사정을 주관하던 국제보상기구, 국제검정기관 등 10여개 관련 국제 전문가 단체가 참석한다.

한편 70여명의 각국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어 해양의 기름 오염사고와 관련된 각종지침 및 매뉴얼의 개발 그리고 유류오염 제거 훈련과정의 개발과, 기름 및 HNS 대응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